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연구

-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비교 -

Life Interchange Between Elderly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 A comparison of the aged living with their sons and those living with
their daughters -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서병숙
대학원생 장선주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Byong Sook Seo

Graduate school Student: Seon Ju Jang

目 次

I. 서론	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I. 결론 및 제언
III. 연구의 모형 및 연구문제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irable life emotion and life interchange between old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The focus was particularly lai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life emotion and life interchange between the aged living with their married sons and those living with their married daught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re old parents live with their married sons than with their married daughters. Also was found that they live with their eldest married sons or daughters and that they keep a normal relation with their married sons, and an emotional relation with their married daughters. This shows that more old people will live with their married daughters than with their married sons in the future.
2. The facts which affect the relation between old parents and their married children are age, sex,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health condition. These facts prove that they may improve the life interchange with their married children through such deliberate

effects as the life-long marriage life with their spouse, the maintenance of health, and the religious life.

3. The affection relation between old parents and the married children was found to be high and the conflict between them was found to be low. Those who live with their married daughters especially showed a higher rate of love relation, and a lower rate of conflict than those who live with their married sons. The former were of more service interchange to their married children than the latter.

Furthermore, the aged people were more satisfied with emotional and kindly daughters than with normal sons.

4. Affec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promoting the emotional life interchange, and dependency was found to be a negative variable. Therefore, both the aged and the married children should try to show high affection to each other and try not to impose any dependency on the other.

I. 서 론

가족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부양 체계로서 존재하여 왔다. 가족의 기능과 중요성이 감소된 서구사회에서도 가족은 노인의 부양체계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그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서어비스적인 부양을 제공받고 있다(Shanas & Sussman, 1981).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들에 의해 부양되고 있고, 노후생활의 모든 관심과 희망이 그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부양은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들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최순남, 1980; 김태현, 198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서병숙, 1988).

1960년대이후 급진적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족구조의 변동 및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출생률과 사망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노인은 사회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체제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변동과정에서 개인주의·능력주의 지향의 사고가 확대됨에 따라(노인복지편람, 1985) 일부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의존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노인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을 모시면서 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부양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었고 노인 스스로의 책임에 관해서는 최성재(1988), 서병숙(1988) 등 극히 일부의 연구에서만 다루고 있어 노인에 대한 시각은 의존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도움을 받는 노인은 극소수이며, 자녀들과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종종 제공자와 수혜자로서 그들 자녀들과 도움교환을 함으로써 노부모와 자녀들은 서로의 생활에서 중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hanas, 1973).

또한 서구사회에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딸에게 할당하는 문화적기반이 존재하여 아들보다는 딸이 노부모에게 더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장남과의 동거가 다소 감소하고 딸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서병숙, 1986; 우미경·서병숙, 1989). 아들과 함께 부모의 부양에 공유적 책임을 갖는 며느리는 의무감과 규범적인 관계인 반면 딸은 애정적인 유대가 강한 특성이 있고 가족의 기능이 애정적인 면에서 강화되고, 딸·아들 구별없이 교육을 시키게 됨에 따라 모든 부양 책임의식을 장남에게만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사회규범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되어야 할 새로운 관습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동거나

부양에 관하여 확실히 내용적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연구방향과는 달리 노인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도움을 제공하는 호혜적인 관계임을, 딸과 아들로 나누어 기혼자녀와 노인과의 생활교류도를 비교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도기 속에서 바람직한 부양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환이론의 측면에서 본 노부모와 기혼자녀와의 관계

Homans(1961)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체적이거나 비실체적이며, 그리고 다소 보상적이거나 손해가 되는 활동의 교환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본질적으로 보상과 댓가의 교환으로 보며, 행동을 동기지워 주는 것은 바로 보상에의 욕구때문이며, 행동을 저지하는 것은 댓가나 징벌을 회피하려는 욕구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환관계에 있어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교환자원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금전, 금품들)과 비물질적인 것(애정, 존경, 신체적·정신적능력, 개인적인 매력 등)이 있다(Turner, 1978). 개인간의 상호관계에서 교환되는 보상은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일 수 있으나, 개인이 지닌 자원은 각각 상이하므로 서로가 항상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특히 교환자원의 유용성은 그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데 비물질적 자원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환상황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르게 마련이다.

교환관계에 들어가는 행위자는 가능한한 대등한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평한 교환관계를 형성, 유지하고자 하나, 많은 경우에 교환관계가 교환자원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의존적 관계가 생기게 된다. Sconzoni(1980)는 한 가족구성원이 상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그는 먼저 상대가 원하는 보상을 채워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역할, 감정 등의 교류를 상호성이라 할 때 특히 상호성의 양과 질이 문제가 되며 가족구성원 일방이 상호성을 무시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개인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한 개인이 손실과 이익을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Tompson & Walker(1984)는 도움의 교환에서 일방적으로 한편이 다른 편에게 많이 주어 호혜성이 결여될 때 세대간의 애정과 접촉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부모와 기혼자녀관계를 교환관계라는 시각에서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효행하는 이유중에는 첫째, 과거에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 둘째, 현재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 셋째, 사회적으로 효행자라는 인정(approval)을 받으려는 동기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 중에서 노인의 문제로는 둘째와 셋째인데 자녀에게 제공해 줄 자원이 없거나 또는 설사 있더라도 그 자원의 질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한국노인은 가족주의에 쫓겨 자신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자원을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결혼 등에 소비하게 됨으로써 노후에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은 부족하게 되고, 비물질적 자원(애정, 존경, 가사능력, 서어비스 등)만 남게 되므로, 가족과의 교환관계가 불균형상태로 되고 의존적인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서구의 노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생활이 습관화되어 기혼자녀와도 상호평등한 역할교환이 관습화되어 있다(Quin, 1983). 노부모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어(role continuity), 세대간의 도움은 일련의 전이(transfer)의 형태를 취해 가족원간의 교환에서 젊은층이 주로 수혜자가 된다(cheal, 1983).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도움을 계속하므로 부모의 재정, 활동, 시간을 소모하지만 그러한 도움은 노인들의 유용성, 자신감, 독립성의 감정을 증가시킨다(Lee, 1982).

2. 상호부조 형태로서의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

부모와 자녀 양세대간의 도움행동은 두 방향—기

혼자녀로부터 그들 부모에게로, 부모로부터 그들의 기혼자녀에게로 —으로 흐른다. 자녀가 결혼을 한 초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가 중년이 되면 서부터는 노부모가 무력해지고 재정적으로 곤란에 직면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들이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준다(최신덕, 1985).

Jan Stehouwer는 도움의 두가지 형태로서, 첫째 형태는 그들이 가까이에서 살면서 서로 서로를 위해서 수행하게 되는 필수적인 아닌 비공식적 서비스와 두 번째 형태는 정교하게 조직된 필수적인 도움으로 구분하였다. Marvin Sussman과 Lee Burchinal은 종류계급과 노동자계급 가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움, 다양한 서비스들의 교환등을 들었다. 기혼자녀가 노부모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어떤 서비스들은 자식으로서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행동들이고, 또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이런 서비스에는 신체적 보호, 주택제공, 호위(escorting), 물건사기, 집안업무 수행하기, 레져시간을 함께 보내기 등이 속한다. 도움의 기타 다른 형태에는 어떤 위기나 질병시에 그리고 장례식과 같은 큰일이 생긴 경우에 행하는 도움이 있다(최신덕, 1985). 특히 상호부조의 유형은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 남자노인들은 전형적으로 가족수리의 면에서 자녀를 도와주고, 여자노인들은 아기돌보기나 요리 등으로 자녀를 돕는다.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같은 종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기혼아들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기혼딸들은 더 많은 서서비스를 받게 된다. 노인과 기혼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교환의 형태는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Troll, 1971), 그것은 노인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족자원의 양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세대간의 도움의 교환에 있어서 계층별 차이를 살펴보면 하층의 경우 노부모들은 재정적인 방법으로부터는 기타 생활의 서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중·상류계층의 노부모들은 재정적인 도움을 기혼자녀에게 주는 한편 자녀는 부모를 방문하고 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최신덕, 1985). 그러나 Streib(1958)는 낮은 소득의 부모일지라도 기혼자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자주 준다고 보고하였다.

North Carolina, Greenboro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자원흐름의 지배적인 패턴은 기혼자녀가 그들의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으며(Adams, 1968), Toroto의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재정적인 도움과 선물을 주기 보다는 더욱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다(Irving, 1972). Detroit의 가족들과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재정적인 원조와 선물을 더 빈번하게 준다고 하였으며(Sharp & Axelrod, 1956), 1978년의 캐나다의 가족지출조사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패턴이 드러났는데 65세 이상 노인은 그들의 자녀에게 선물보다는 금전을 빈번하게 제공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금전보다는 선물을 더욱 빈번하게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Aldous(1986)는 부모는 평균 1년에 약 6번정도는 기혼자녀에게 선물, 대부, 대금지불 등을 지원해 주며, 기혼자녀는 부모에게 질병시 원조, 집안일, 주택손질 및 정원손질 등 방문과 서서비스로 도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Beth & Waring(1978)은 노부모들은 「아이돌보기」와 「조인」과 같은 서서비스의 보답으로 기혼자녀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Lee(1982)의 연구에서는 세대상호간의 원조관계에서 부모가 건강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배우자가 있고 젊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자가 더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한국인구보건원에서 실시한 조사(1985)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노인을 모시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며느리와 기혼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가 각각 75.7%와 78.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이와는 반대로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은 각각 6.1%, 6.0%로서, 노인은 가정에서 의존적인 거처장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인들의 35.3%가 가정생활비를 분담하고 있어 자녀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신덕(1982)의 연구에서도 시어머니와 동거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점으로는 자녀를 돌봐준다가 42%, 집안일을 도와준다가 33%로서 노인들은 가능

한 한 가사일을 도우며 생활하려는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정내에서의 노인의 역할이 상당히 많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에서 실시한 만 60세 이상 남녀 1,427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표본조사에서도, 노인 대부분(85.1%)이 가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집안일 거들어 주기(51.9%), 상담역(43.2%), 어린이 돌보기(36.6%), 웃어른으로서의 도움(35.2%), 그리고 경제적 도움(12.7%)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듯, 노인이 주는 도움은 노인의 독립심과 자아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노인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녀는 의존성을 기대하게 한다. 반대로 받는 도움은 노인의 의존성을 증가시킨다고는 하나 노인의 복지를 위한 자녀의 확고한 관심과 신념을 입증해 주고 노인을 편하게 살게 해준다. 특히 노인세대는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이나 교환관계보다는 다음 세대가 자신을 계승해 주고, 영속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감정적, 심리적 차원의 유대를 더욱 강조한다는 것이다(윤진, 1986).

상호부조의 형태로서 생활교류는, 경제적교류, 정서적교류, 서어비스적 교류를 포함한다. 경제적 교류는 생활비, 용돈, 선물교환 등 금전과 관련된 재정적인 원조이며(Lopata, 1978), 정서적 교류는 부모 자녀간의 접촉, 부모 자녀간의 주고받는 감정적 상호교환으로 인해, 신뢰감, 공평함, 존경심, 애정 등의 관계이다(윤진, 1986). 서어비스적 교류는 식사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손자녀 돌보기 등 일상생활에 대하여 가족과의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생활교류 중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교류로서, 이는 사회 혹은 공적기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의 심리적 도움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 즉,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노년기의 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가족원간에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존경과 애정에 근거한 정서적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노인문제 해결의 근원이나 책임소재의 상당부분이 가족이란 사실에 유의함으로써 두 세대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정서적 관계로서의 딸의 역할

한국 가족은 제도적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부계가족이며, 특히 장남만이 결혼 이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더불어 생활하는 직계가족이다(김한초, 1986). 이러한 사회적 배경속에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기혼장남에 의한 동거부양을 받고 있으며(김성순, 1981), 노부모들 또한 대개 장남과의 동거를 희망내지 선호하고 있으므로(양춘, 1984),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계승되어 노인의 동거현황은 기혼의 아들과 사는 것이 지배적인 패턴이 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권규식(1973)의 연구결과, 장남 부부와의 동거가 6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남 이외의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12.6%이었고, 1980년 초반의 김태현의 연구결과(1981)를 살펴보면, 장남부부와의 동거가 47.3%, 장남 이외의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18.3%, 딸부부와의 동거가 3.5%로 나타났고, 한국인구보건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1985), 장남부부와의 동거가 38.4%, 장남의 아들과의 동거가 12.4%, 딸부부와의 동거가 2.4%로 나타나 점차 장남부부와의 동거가 줄어들고 있어 장남과 동거하는 전통적인 관습은 점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또한 서병숙(1988)의 연구에서도 결혼한 장남과 동거하는 경우가 전체의 49.5%를 차지하며, 기혼 딸부부와의 동거도 11.6%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보다 다른 경향은 여자노인이 딸부부와 동거하는 경우가 14.8%로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인들이 딸과의 교류가 보다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딸과의 동거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에서는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기혼딸에 할당하는 문화적기반이 존재하고 있어,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딸의 영역이며, 아들보다는 딸과의 교류가 더 활발하다(Stoller, 1983). 기혼딸은 부모와 밀접한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자녀돌보기와 집안일도움 등을 자주 제공받으며(Aldous, 1986), 기혼딸도 부모에게 정서적, 신체적 서어비스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으며(Stoller, 1983), 홀로 된 여자노인에 있어서는 기

혼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Brockinton에 의하면, 정서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은 젊은 자녀 또는 친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전체대상자의 50%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혼딸과의 동거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현, 1980 재인용), Lopata(1979)의 연구 또한 기혼딸이 더 정서적인 원조를 주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아들과 딸이 협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nderson, 1984).

여성은 남성보다도 양가가족과 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중년부부의 경우엔 남편쪽 가족보다 아내 쪽 가족과 더 밀접히 지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최신덕, 198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아들지향적으로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아들부부와 정착하는 거주습관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가족의 기능이 애정적인 면에서 강화되고 인구정책에 의한 산아제한으로 딸만 있는 부부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교육면에 있어서도 성 구별없이 동등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딸부부와 의 동거가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딸의 경우는 감정적 차원에서 친정부모와 매우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 즉 딸은 책임이상으로 부모를 도와주는 편이고, 경

제적인 도움외에도 정서적으로, 서어비스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에 비하여 아들은 보다 공식적이고 맡은 책임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구보건원(1985)의 조사에서도 딸이(66.5%), 며느리(47.3%)보다 대화를 많이 하며, 다툼이 없는 경우도 딸이 87.7%, 며느리 80.9%로 나타나 딸과의 동거가 부모와 딸의 가치의식에 따라 매우 이상적일 수 있다.

Ⅲ. 연구의 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교류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 1: 노인의 생활교류는 배경변인 중 어떤 변인의 영향을 받는가?

문제 2: 생활감정 및 생활교류는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3: 생활감정과 생활교류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문제 4: 생활교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감정 변인은 무엇인가?

Ⅳ.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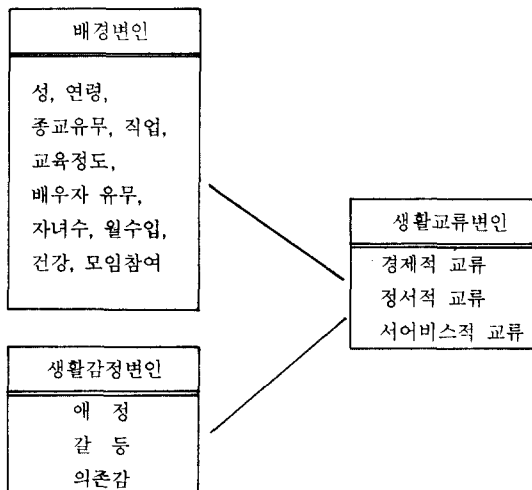
1) 배경변인

조사대상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서 성, 연령, 종교유무, 직업, 교육정도, 배우자유무, 자녀수, 월수입, 건강, 모임참여 등을 포함시켰다.

2)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대상자의 실제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녀와의 동거이유, 자녀와 동거시 좋은 점, 자녀와 동거시 불편한 점, 동거희망자녀, 정서적으로 편안한 자녀 등을 포함시켰다.

3) 자녀와의 애정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질문지 구성내용

내 용		측 정 척 도	문 항 수
노인의 배경변인			11
노인의 생활실태			6
생활감정	자녀와의 애정	5점 likert 척도	10
	자녀의 갈등	"	10
	자녀에의 의존감	"	5
생활교류	경제적 교류	"	6
	정서적 교류	"	10
	서어비스적 교류	"	10

노인과 동거하는 자녀와의 애정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밀접성, 신뢰, 가치합일 등의 10문항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각 문항의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애정의 정도가 높다.

내적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값은 0.81이다.

4) 자녀와의 갈등

노인과 동거자녀와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방식, 행동, 세력, 자원의 사용과 분배, 성격 등의 불만족 등의 10문항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각 문항의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의 정도가 높다.

내적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값은 0.89이다.

5) 자녀에 대한 의존감

노인의 자녀에 대한 의존감은 경제적 의존성, 심리적 의존성, 정신능력의 의존성, 사회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을 묻는 5개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내적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Cronbach'값이 낮아 사회적 의존성의 항목을 제외하여 4개문항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각 문항의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의 의존감의 정도가 높다.

내적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값은 0.64이다.

6)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

노인과 자녀간의 금전, 선물 등 물질적인 도움교환의 6개 문항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에서 「매우 도움을 주고 받는다」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각 문항의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가 높다.

내적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값은 0.85이다.

7)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

노인과 자녀간의 대화정도, 감정적 상호교환의 정도 등의 10개 문항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에서 「매우 도움을 주고받는다」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각 문항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가 높다.

내적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값은 0.89이다.

8) 자녀와의 서어비스적 교류

노인이 일상생활 중 자녀의 도움을 어느정도 받는가 혹은 오히려 자녀들을 도와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식사준비, 설거지, 집보기 등의 10개문항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에서 「매우 도움을 주고받는다」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각 문항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분 류	아들동거	딸 동 거
		(%)	(%)
성 별	男	90(44.3)	19(15.3)
	女	113(55.7)	105(84.7)
	계	203(100)	124(100)
연 령	60~69세	72(35.5)	59(47.6)
	70~79세	101(49.7)	53(42.7)
	80세이상	30(14.8)	12(9.7)
	계	203(100)	124(100)
종 교	없 다	52(25.6)	29(23.4)
	불 교	67(33.0)	43(34.7)
	기 독 교	47(23.2)	38(30.6)
	천 주 교	30(14.8)	12(9.7)
	유 교	6(3.0)	1(0.8)
	기 타	1(0.5)	1(0.8)
계	203(100)	124(100)	
현재직업	有	19(9.4)	4(3.2)
	無	184(90.6)	120(96.8)
	계	203(100)	124(100)
과거직업	무 직	93(48.7)	92(74.8)
	단순근로자	14(7.3)	2(1.6)
	농축산업	25(13.1)	7(5.7)
	판 매 직	14(7.3)	8(6.5)
	회사사무직	12(6.3)	3(2.4)
	행정관리직	8(4.2)	3(2.4)
	전 문 직	8(4.2)	2(1.6)
	기 타	17(8.9)	6(4.9)
	계	203(100)	124(100)
교육정도	무 학	62(31.2)	33(26.8)
	서 당	13(6.5)	9(7.3)
	국 졸	57(28.6)	36(29.3)
	중 졸	30(56.1)	22(17.9)
	고 졸	20(10.1)	16(13.0)
	대학졸이상	17(8.5)	7(5.7)
계	203(100)	124(100)	
배우자관계	동 거	77(37.9)	24(20.0)
	별 거	0(0)	5(4.2)
	이 혼	8(3.9)	1(0.8)
	사 별	118(58.1)	90(74)
계	203(100)	124(100)	
딸 수	0	29(14.3)	0(0)
	1~2명	97(47.8)	77(62.1)
	3명 이상	77(37.9)	47(37.9)
	계	203(100)	124(100)

변 인	분 류	아들동거	딸 동 거
		(%)	(%)
아 들 수	0	0(0)	42(33.9)
	1~2명	100(49.3)	65(52.4)
	3명이상	103(50.7)	17(13.7)
	계	203(100)	124(100)
총자녀수	1~2명	26(12.8)	36(29.0)
	3~4명	75(39.5)	53(43.5)
	5명이상	102(52.2)	35(27.5)
	계	203(100)	124(100)
현재동거자녀	장 남	159(78.3)	
	차 남	29(14.3)	
	다른기혼아들	15(7.4)	80(64.5)
	장 녀		30(24.2)
	차 녀		14(11.3)
계	203(100)	124(100)	
월 수 입	19만원이하	4(2.1)	1(0.8)
	20~ 39만원	12(6.2)	7(5.7)
	40~ 59만원	37(19.1)	11(9.0)
	60~ 79만원	30(15.5)	19(15.6)
	80~ 99만원	32(16.5)	30(24.6)
	100~149만원	39(20.1)	27(22.1)
	150~200만원	23(11.9)	10(8.2)
	200만원이상	17(8.8)	17(13.9)
계	203(100)	124(100)	
모임참여	없 다	34(16.7)	42(33.9)
	노 인 정	87(42.9)	24(19.4)
	노인학교	37(18.2)	16(12.9)
	종교단체	3(17.2)	34(27.4)
	취미단체	9(4.4)	4(3.2)
	봉사단체	1(0.5)	3(2.4)
계	203(100)	124(100)	
건강상태	매우 건강치 않다	16(7.9)	9(7.3)
	별로 건강치 않다	51(25.1)	36(29.0)
	보 통 이 다	34(16.7)	35(28.2)
	대체로 건강하다	71(35.0)	34(27.4)
	아주 건강하다	31(15.3)	10(8.1)
계	203(100)	124(100)	
용돈만족 상태	매우 만족하지 못하다	12(5.9)	6(4.8)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40(19.7)	18(14.5)
	그저 그렇다	42(20.7)	23(18.5)
	대체로 만족하다	77(37.9)	56(45.2)
	아주 만족하다	32(15.8)	21(16.9)
계	203(100)	124(100)	

〈표 3〉 생활실태 현황

〈표 3-1〉 아들과의 동거이유

이유	빈도(%)
당연하다	127(62.6)
아들이 원한다	25(12.3)
내(배우자)가 원해서	14(6.9)
별거시 경제적 궁핍	18(8.9)
별거시 육체적 곤란	4(2.0)
자식의 집안일 도움	7(3.4)
기 타	2(1.0)
합 계	203(100)

〈표 3-2〉 딸과의 동거이유

이유	빈도(%)
부양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35(28.2)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못해서	11(8.9)
아들이 모실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적 or 직장관계)	31(25.0)
딸의 집안일 도움	11(8.9)
며느리보다 딸이 편해서	22(17.7)
딸이 원해서	12(9.7)
기 타	2(1.6)
합 계	124(100)

〈표 3-3〉 아들과 동거시 좋은 점

좋은 점	빈도(%)
아들과 살기로 든든하다	155(48.4)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 딸보다 편하다	28(8.8)
남 보기에 떳떳하다	90(28.1)
아들과 사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이라 생각한다	47(14.7)
합 계	320(100%)

(중복응답)

〈표 3-4〉 딸과 동거시 좋은 점

좋은 점	빈도(%)
마음이 편하다	90(42.7)
며느리눈치를 보지 않아 좋다	11(5.2)
아들보다 딸이 마음을 잘알아 준다	36(17.1)
딸과 거리낌없이 얘기하고 지내므로 좋다	74(35.0)
합 계	211(100)

(중복응답)

〈표 3-5〉 아들과 동거시 불편한 점

불편한 점	빈도(%)
없 다	90(38.8)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불편하다	33(14.2)
아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	44(19.1)
아들, 며느리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못한다	43(18.5)
집안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힘들다	14(6.0)
손자녀 돌보기가 힘들다	8(3.4)
합 계	232(100%)

(중복응답)

〈표 3-6〉 딸과 동거시 불편한 점

불편한 점	빈도(%)
없 다	35(24.0)
사위눈치를 봐야 한다	36(24.7)
사위가 말을 잘 안해 불편하다	11(7.5)
시댁식구등 남보기가 떳떳하지 못하다	45(30.8)
집안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힘들다	12(8.2)
손자녀 돌보기가 힘들다	7(4.8)
합 계	146(100)

(중복응답)

〈표 3-7〉 동거희망자녀

동거희망자녀	아들동거(%)	딸동거(%)
혼자 살고 싶다	13(6.4)	19(15.3)
배우자	18(8.9)	15(12.1)
장남부부	134(66.0)	25(20.2)
장남이외의	23(11.3)	4(3.2)
기혼아들부부		
기혼딸부부	3(1.5)	56(45.2)
기 타	5(2.5)	4(3.2)
합 계	203(100)	124(100)

〈표 3-8〉 정서적으로 편안한 가족

정서적으로 편안한 가족	아들동거(%)	딸동거(%)
배우자	53(26.1)	17(13.7)
아들	35(17.2)	3(2.4)
며느리	70(34.5)	4(3.1)
딸	22(10.8)	88(71.0)
손자녀	7(3.4)	8(6.5)
기 타	13(6.4)	4(3.2)
합 계	203(100)	124(100)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교류의 변량분석

배경변인	동거형태 생활교 류변인	아들동거노인			딸동거노인		
		정서적 교 류	경제적 교 류	서어비즈니스 교 류	정서적 교 류	경제적 교 류	서어비즈니스 교 류
성 별	남 자	3.4247	2.3023	2.1058	3.6941	2.1754	2.4222
	여 자	3.3973	2.0045	2.8789	3.3837	2.1314	3.4163
	T 값	0.25	1.68*	-5.92***	1.71*	0.16	-4.11****
종 교	있 음	3.4792	2.2342	2.6607	3.4341	2.4340	3.3613
	없 음	3.2118	1.8367	2.1820	3.4148	1.8276	2.9759
	T 값	2.22**	1.97**	3.04***	0.13	1.78*	1.82*
직 업	있 음	3.7667	3.2807	2.5722	2.6333	3.0000	2.8000
	없 음	3.3729	2.0121	2.5345	3.4241	2.1092	3.2856
	T 값	2.15**	4.43**	0.16	0.51	1.63	-0.95
배우자	동 거	3.5736	2.6194	2.3616	3.6739	2.6319	3.2792
	사 별	3.2643	1.7888	2.6711	3.3171	2.2043	3.2920
	T 값	2.80***	4.76****	-2.09**	2.20**	2.47**	-0.06
연 령	60~69	3.6353	2.7995	2.6662	3.4696	2.4096	3.5672
	70~79	3.2773	1.7845	2.5500	3.4229	2.0000	3.1788
	80세이상	3.3233	1.7556	2.1714	3.2545	1.4028	2.2250
	F 값	5.02***	17.85****	2.61*	0.44	5.40****	10.65****
학 령	무 학	3.2050	1.6721	2.5705	3.1533	1.5202	3.0818
	국 졸	3.4696	2.0714	2.6000	3.5814	2.2159	3.4068
	중·고졸	3.3957	2.4694	2.3936	3.4029	2.5658	3.3297
	대학졸	3.8800	3.5490	2.6733	3.9286	2.4048	3.2000
	F 값	3.79**	13.80****	0.54	3.74**	6.56****	0.71
딸 수	0	3.2444	2.3095	2.7667	—	—	—
	1~2	3.4097	2.1844	2.5947	3.4429	2.1557	3.3000
	3 이상	3.4680	2.0066	2.3795	3.4089	2.1099	3.2213
	F 값	0.89	0.76	1.86	0.06	0.05	0.18
아들수	0	—	—	—	3.4784	2.4228	3.4952
	1~2	3.4361	2.3232	2.6041	3.4516	2.0436	3.3203
	3 이상	3.3827	1.9444	2.4724	3.2312	1.8137	2.4750
	F 값	0.25	4.70**	0.88	0.77	2.48*	6.68***
총 자녀수	1~2	3.5269	2.4167	2.8423	3.5355	2.3810	3.4333
	3~4	3.3000	2.3079	2.5718	3.3824	2.0126	3.2788
	5 이상	3.4556	1.9350	2.4327	3.4030	2.0857	3.0824
	F 값	1.26	2.71*	1.87	0.50	1.28	1.07
가족의 총 월수입	59만원	3.333	1.7170	2.5712	3.1471	1.7719	3.1789
	60~99만원	3.3850	1.8417	2.3183	3.4681	1.9830	3.4208
	100~149만원	3.3865	2.4234	2.6892	3.4565	2.6474	3.3769
	150~199만원	3.7136	3.2391	2.7455	3.3444	1.6667	3.1700
	200만원이상	3.5375	2.4583	2.7562	3.5824	2.4216	3.0471
	F 값	1.19	8.73****	1.40	0.97	3.17**	0.60
모 임 여	노인정	3.2750	1.5064	2.4151	3.4200	1.7604	2.9267
	노인학교	3.3438	2.1111	2.9588	3.3818	2.6944	3.5727
	종교단체	3.6500	2.9423	2.6654	3.3967	2.4462	3.6906
	비참여	3.0567	1.9167	2.5967	3.3923	1.9087	3.0976
	F 값	2.95**	8.86****	1.23	0.01	3.42**	3.21**
건 강	건강하다	3.5713	2.5747	3.3126	3.5761	2.1863	2.7719
	건강하지않다	3.1421	2.1021	2.4641	3.1872	2.1312	2.1321
	T 값	4.12***	7.38****	6.97****	10.29****	0.19	3.17**

*p<0.1 **p<0.05 ***p<0.01 ****p<0.001

와의 서어비스적 교류가 높다.

내적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값은 0.87이다.

2. 표본추출 및 조사기간

본 조사는 노인과 자녀와의 생활교류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60세 이상의 노인^{*1}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설계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사가 바람직하나, 비용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유의표본추출에 의존하였다.

예비조사는 1989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아들동거노인 20명, 딸동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아들동거노인 210명, 딸동거노인 1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하고, 아들동거노인 203명, 딸동거노인 124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기법이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과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한 빈도분포·백분율을 알아보고 생활교류에 대한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간의 생활감정 및 생활교류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하였으며,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생활교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감정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에 의거 β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현재 대한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도 55~65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통념으로도 대개 60세가 되면 노인으로 인정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노인은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개인」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V. 결과 및 해석

1. 생활실태현황

생활실태현황은 <표 3>과 같다.

2. 배경변인에 따른 동거노인의 생활교류

노인의 가정생활에서 자녀와의 「정서적」 「경제적」, 「서어비스적」 생활교류가 배경변인에 의하여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표 4 참조)

1) 정서적 교류

아들동거노인의 경우, 종교, 배우자가 있고, 직업이 없으며, 연령이 적고,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노인이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가 높았고, 딸동거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학력이 높고, 건강하고, 여자보다는 남자노인이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가 높았다. 아들동거노인, 딸동거노인에 상관없이 정서적 교류가 높은 노인들은, 교육정도가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연령이 적은 노인들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Gary(198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2) 경제적 교류

아들동거노인의 경우, 종교, 직업, 배우자가 있고, 연령이 적으며, 학력이 높고, 아들수·총자녀수가 적으며, 가족월수입이 많고, 종교단체·노인학교에 참여하고 건강하며, 여자보다는 남자노인이 자녀와 경제적인 교류가 높았고, 딸동거노인의 경우, 종교, 배우자가 있고, 연령이 적으며, 학력이 높고, 아들수가 적으며, 가족월수입이 많고, 노인학교에 참여하는 노인이 자녀와 경제적인 교류가 높았다.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 모두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중·상류계층의 젊은 노인들이 자녀와 경제적인 교류가 많았는데, 이는 Aldous(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특히 아들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인 교류가 많은 것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는 노인

들이 여러자녀에게 골고루 경제적인 원조를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서어비스적 교류

아들동거노인의 경우, 종교, 배우자가 있고, 연령이 적으며, 건강하고, 여자노인이 자녀와 서어비스적 교류가 높았고, 딸동거노인의 경우 종교가 있고, 연령, 아들수가 적으며 종교단체·노인학교에 참여하고 건강하며, 여자노인이 자녀와 서어비스적 교류가 높았다.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 모두 연령이 적고 건강한 여자노인이 자녀와 서어비스적 교류가 높았다. 또한 딸동거노인 중 노인정에 다니는 노인이 서어비스적 교류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인정에서 보내므로 자녀를 도울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감정 및 생활교류의 차이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서어비스적 교류뿐이며, 이외에 애정, 갈등, 의존감, 정서적 교류, 경제적 교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5) 이것은 딸동거노인이 아들동거노인에 비해 가사원조 등의 도움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서어비스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정숙(1981)의 연구에서는 동거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은 가사활동 참여율이 80%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기 힘으로 가족에게 원조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참여를 대단히 즐겁다(85%)고 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체력에 맞는 가사활동에 참여하여 생활의 보람과 의의를 느낄 수 있도록 가족의 배려가 필요하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애정은 아들동거노인이 5점만점에 3.54로서 딸동거노인(3.4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갈등은 아들동거노인이 2.45로서 딸동거노인(2.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들동거노인이 딸동거노인보다 더 많은 의견충돌이 있다는 한국인구보건원(1985)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와의 갈등은 아들이 딸보다 많다는 송현애(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의존감은 아들

동거노인이 3.64로서 딸동거노인(3.54)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정서적 교류는 딸동거노인이 3.43으로서 아들동거노인(3.40)에 비해 높으며 이는 노인이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딸이 아들보다 정서적인 원조를 잘해주고 있다고 하였고(김태현, 1981), 출가한 딸부와 동거하는 노인이 정서적 부양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제적 교류도 딸동거노인이 2.14로서 아들동거노인(2.13)에 비해 미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딸과 부모와의 애정이나 도움교환, 정서적 관계가 아들보다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부분이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딸과 동거하는 노인들의 많은 수가 부양할(53%) 아들이 없거나 아들과 동거할 형편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딸과 살고 있음으로써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생활감정과 생활교류간의 상관관계

본 절에서는 생활감정과 생활교류변인들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들동거노인의 경우 <표 6-1>, 애정과 정서적 교류가 가장 높은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갈등과 정서적 교류, 애정과 갈등 등이 서로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딸동거노인의 경우, 갈등과 정서적 교류가 가장 높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애정

<표 5>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감정 및 생활교류의 차이 분석

		아들동거	딸 동 거	t 값
애	정	3.5362	3.4808	0.71
갈	등	2.4554	2.4352	0.22
의	존 감	3.6394	3.5410	0.99
정	서 적 교류	3.4092	3.4296	-0.24
경	제 적 교류	2.1338	2.1382	-0.03
서	어 비 스 적 교류	2.5379	3.2697	-6.39****

****p<.0001

과 갈등, 의존감과 정서적 교류순이며, 애정과 정서적 교류는 높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표 6-2).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 모두 의존감과 경제적 교류간에 부적관계가 나타났고, 서어비스적 교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때 자녀와의 애정이 높을수록 갈등이 적고 정서적 교류가 높으며, 갈등과 의존감이 낮을수록 경제적, 정서적 교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교류가 높을수록 정서적 교류가 높게 나타났다.

5. 생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감정변인

노부모와 자녀간의 생활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생활교류에 유력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감정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표 7)

정서적 교류에 대해 가장 유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 모두 애정인 것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갈등, 의존감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4.8%이다. 즉, 정서적 교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애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는 Gary(198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 다음은 갈등이 적어야 하고 의존감도 적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교류에 가장 유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존감이고, 그 다음은 애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0.2%이다. 이것은 의존감이라는 속성이 경제적 교류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교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노인들이 자녀들에 대한 의존감이 낮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애정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어비스적 교류에는 애정, 갈등, 의존감 모두 유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어비스적 교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애정, 갈등, 의존감의 생활감정변인보다도 다른 변인이 더 크게 작

〈표 6-1〉 아들동거노인의 주요변수 상관관계

	애 정	갈 등	의존감	정서적 교류	경제적 교류	서어비스적 교류
애 정	—					
갈 등	-0.6042***	—				
의존감	0.1635**	0.1334**	—			
정서적 교류	0.6591***	-0.6142***	-0.0841	—		
경제적 교류	0.1829***	-0.2470***	-0.5762***	0.3716***	—	
서어비스적 교류	-0.0598	0.1113**	-0.0664	-0.0094	0.0648	—

p<0.01 *p<0.001

〈표 6-2〉 딸동거노인의 주요변수 상관관계

	애 정	갈 등	의존감	정서적 교류	경제적 교류	서어비스적 교류
애 정	—					
갈 등	-0.5305***	—				
의존감	-0.0225	0.0194	—			
정서적 교류	0.6810***	-0.6927***	-0.1418**	—		
경제적 교류	-0.0655	-0.0019	-0.3219***	0.1296***	—	
서어비스적 교류	-0.0914	0.0610	-0.0915	0.0070	0.1082	—

p<0.01 *p<0.001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교류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두세대간의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특히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노후부양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조사연구를 통해 얻어진 중요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들은 딸동거보다는 아들동거가 많고 특히 동거자녀의 경우 장남, 장녀와의 동거가 많았다. 그러나 자녀와의 동거시 아들과는 규범적인 관계를 딸과는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딸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아들과의 동거를 고정하기 보다는 딸과의 동거를 선호함으로써 앞으로는 딸동거부모가 증가 할 것이 전망되며 이에 따라 노인층의 아들선호의 가치관도 점차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동거부모와 자녀간의 생활교류에 영향하는 배경변인으로는 배우자, 학력, 건강, 종교, 성별, 연령등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배우자와의 해로, 건강의 유지, 종교생활 등 부모층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자녀와의 감정이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아들동거의 경우나 딸동거의 경우, 정서적교

류와 경제적교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딸동거의 경우가 갈등이 약간 적고, 정서적교류, 경제적교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집밖에서 직업적성취에 더 사회화되어있는 아들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며 대화하기 쉬운 딸의 보살핌이 정서적으로 더욱 만족스러울 것이다.

네째, 부모와 자녀와의 정서적교류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애정이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으므로 양세대는 애정을 갖기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양세대간 경제적교류에서는 의존성이 부정적인 요소가 됨으로 노인 스스로가 독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첫째, 노인은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크면 클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갈등과 긴장으로 생활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자녀들에 대한 의존적인 삶을 지향하고 독립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자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노부모의 경우는, 자녀에게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서어비스적인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게 또는 많은 부분을 주고 받는 호혜관계가 있음을 밝혀낼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노인세대는 가능한 한 자신의 귀중한 체험과 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종래 수행하여온 역

〈표 7〉 주요변수들간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정서적 교류		경제적 교류		서어비스적 교류	
	b	β	b	β	b	β
애 정	0.50530	0.46725***	0.24076	-0.13651	—	—
갈 등	-0.33058	-0.35537***	—	—	—	—
의 존 감	-0.10001	-0.11556***	-0.69495	-0.49744	—	—
R ²	0.54778		0.50220		—	
F	119.517***		51.60192***		—	

***p<0.001

할의 지속 내지는 새로운 역할을 창출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자녀세대는 부모와의 동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세대 모두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째, 아들이 딸보다 노부모와의 생활교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 비추어, 딸과의 동거가 정서적인 안정을 기할수 있고, 부모와 딸의 가치의식에 따라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딸에 의한 부양형태도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되어 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도 파악과 바람직한 부양체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 시도는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에 의해 작성하였으므로 그 타당성은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정자, "한국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2) 구소원, "노인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3) 김양희, "한국도시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4)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5) ———, "핵가족화와 노인부양", 핵가족화와 노인복지, 1982.
- 6) 김한초, "한국가족의 표준모형 개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7) 박영란, "한국노인의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8) 박재간,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5, 1985.
- 9) 서병숙,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6, 1986.
- 10) ———, "노후적용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8.
- 11)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12) 아산사회복지사회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 13) 양 춘,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서울:정음사, 1984.
- 14) 우미경·서병숙,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화학연구 제7집, 1989.
- 15)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1986.
- 윤 진,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 핵가족화와 노인복지, 1982.
- 16)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17) 최신태, "노인부양과 규범의 정립", 핵가족화와 노인복지, 1982.
- 18) ———, 노년사회학, 경문사, 1985.
- 1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84.
- 20) 한국인구보건원,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1985.
- 21) Adams, B.N., *Kinship in a Urban Setting*, Cicago: Markham Publishing, 1968.
- 22) Atchley, R.C., "Social Forces & Aging", 1988. pp.239-254.
- 23) David, J. Cheal., "Intergenerational Family Transf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Nov.) 1983. pp.805-813.
- 24) Dobrof, R.D. & Litwack, E., *Maintenance of family Ties of Longterm care Patients*, Rockville, M.D.: Ni MH, 1977.
- 25) Eleanor Palo Stoller, "Parental Caregiving by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Nov.) 1983, pp.851-857.
- 26) Gary R. Lee,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Feb.) 1982. pp.217-224.
- 27) Gelfand, D.F., Olsen, J.K and Block, M.R., "Two

- Generations of Elderly in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Implications for Family Services," The Family Coordinator (Oct.) 1978.
- 28) Hess, B.D. & Waring, J.M., "Changing Patterns of Aging and Family Bonds in Later Life," The Family Coordinator (Oct.) 1978.
- 29) Homans, G.C.,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1st ed.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1961.
- 30) Irving, N., "The Family Myth", Toronto: Copp Clark, 1972.
- 31) Blau, Z.S., *Old Age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New Viewpoints. 1973.
- 32) Beth, B. Hess & Joan M. Waring., "Changing Patterns of Aging and Family Bond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Nov) 1978, pp. 303-314.
- 33) Blenkner, M., "Social Work and Family relations in later life with some thoughts on filial maturity." In E. Shanas, and G. Streib (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New York: Prentice-Hall, 1965.
- 34) Canada, *Statistics Canada*, Unpublished tabulations from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1978.
- 35) Cheal, D.J., "Intergenerational Family Transf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5 (Nov) 1983. pp.805-813.
- 36) CiCirelli, V.G.,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Nov.) 1983. pp.815-825.
- 37) Joan Aldous, "New Views on the family life of the elderly and the Near-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86. pp.227-233.
- 38) Quin, W.H.,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Feb.) 1983. pp.57-73.
- 39) Romona M.B and Deane C., "Mother-in Law and Daughters-in-Law: The Effects of Proximity on Conflict and Stress", Family relations, Vol.36, 1983. pp.385-390.
- 40) Shanas, E., "Family-kin Network and Ag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5, 1973. pp.505-511.
- 41) Simos, B.G., "Adult Children and their Aging Parents" Social Work (May) 1973. pp.78-85.
- 42) Streib, G., "Family Patterns in retir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14. (Spring), 1958. pp.46-60.
- 43) Tompson L. & Walker, A.J.,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6 (May), 1984. pp.313-325.
- 44) Troll, E.L., "The Family of Later lif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3, 1971. pp.263-290.